

농촌공간의 구조적 특성에 바탕으로 한 어메니티자원 분류체계 재정립

최영완 · 김영주*

경상대학교 대학원 · *경상대학교 지역환경기반공학과(농업생명과학연구원)

Remodelling of Amenity Resources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Rural Territory

Choi, Young-Wan · Kim, Young-Joo*

Graduate School, Gyeongsang National Univ.

*Dept. of Agricultural Eng.(Insti. of Agri. & Life Sci.), Gyeongsang National Univ.

ABSTRACT : Rural policies in Korea have been changed into amenity-oriented ones recently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for villigians, which should be supported by the amenity-oriented maintenance system for rural space or environment too. Although so many studies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amenity resources had been carried out, few ones which classified them principally by their spatial characteristics had been tried. From the viewpoint mentioned above, this study tried to propose a tentative classification system of amenity resources focussed on their locational characteristics. By the literature review, its draft was prepared, and after 2-round expert checks, the final table determined, which composed of 3-subsystems; green, production and living environment. Through the field application works in two case villages, its practical applicability was ascertained, from which two regarding points were found; public usability of terms and seasonality of amenity resources, especially green ones.

Key words : Rural Amenity, Rural Improvement, Resource Classification system, Rural spatial characteristic

I. 연구배경 및 목적

21세기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농촌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성 증진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지향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공간도 어메니티(Amenity) 지향형으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임창수, 2008).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마을 정비도 농촌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을 반영하여 다양한 모습의 농촌마을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 위주의 획일적 정비방식을 탈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박시현 등, 1995).

그러나 기존의 농촌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어메니티의 개념과 정의, 경관, 개별 자원요소의 실태 파악, 자원요소의 분류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연구에

만 치중되어 왔으며,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방법과 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즉, 기존의 연구는 농촌어메니티 자원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에만 기초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농촌공간은 구조적 특성에 따라 크게 살터(생활환경공간), 일터(생산환경공간), 쉼터(생태환경공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메니티 지향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트렌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공간적 입지 특성에 따라 분류체계를 재정립하고 이들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나아가, 농촌마을 정비의 새로운 대안으로 농촌공간의 구조적 특성에 어울리는 농촌어메니티 자원별 관리 및 활용방안 등이 농촌마을의 효율적인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적 입지 특성에 따라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Corresponding author : Kim, Young-Joo

Tel : 055-772-1935

E-mail : yjkim7171@gnu.ac.kr

분류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기존 문헌 및 연구보고서 등을 비교·분석하여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를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 그룹의 평가를 통해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연구방법

먼저 국내외 기존 문헌 및 연구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농촌이 갖는 다원적 특성과 농촌의 기능 및 역할 뿐만 아니라, 농촌공간의 구조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크게 녹색환경공간, 생활환경공간, 생산환경공간으로 대분류하고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 시안을 작성하였다.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 시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 그룹 평가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연구진의 검토를 거쳐 적절히 조정·보완하여 자원분류체계를 재정립하였다. 이를 2개 사례마을에 대한 적용연구를 통해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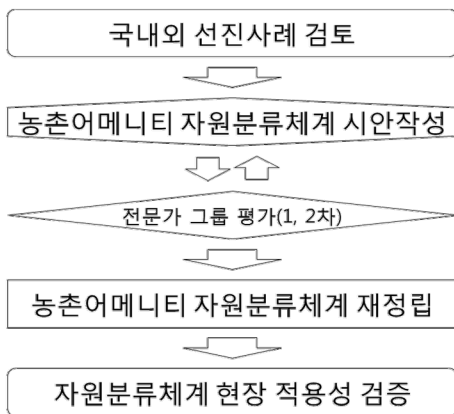


Figure 1 연구흐름도.

III.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 재정립

1. 기존의 어메니티 개념 및 자원분류체계

어메니티의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영국의 도시계획자인 William Holford는 어메니티는 단순히 하나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치를 지닌 총체적인 카탈로그이며, 그 것은 ‘적재적소(適材適所)

(The right thing in the right place)’ 또는 ‘전체로서 쾌적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임형백, 2001). Cullingworth(1964)는 영국의 도시·농촌계획(Town and Country in England and Wales)에서 어메니티를 ‘환경보전’의 의미로 설명하고, ‘어메니티를 정의하기 보다는 인식하는 쪽이 쉽다(Amenity is Easier to Recognize to Define)’고 개념화하였다. OECD(1999)에서는 1990년대 이후 농촌에 산재하는 정주패턴, 생물종 다양성, 역사적 건축물, 농촌공동체 등의 자원을 농촌어메니티로 분류하고 이를 농촌공간정책의 대상으로 확고하게 인식하였다. 일본의 경우 鄭岩宇(1994)가 농촌지역 특유의 녹(綠)이 풍부한 자연, 역사, 풍토 등을 기반으로 하여 여유, 정감, 평온이 가득하고 사람과 사람의 접촉에 바탕을 둔 정주패적성을 갖는 상황을 농촌어메니티라 정의하였다.

농촌지역의 어메니티자원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atabase)는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현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에서 ‘농촌어메니티 종합기술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전국 1,230개 읍면을 대상으로 구축해 오고 있다. 이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는 자원의 이용과 유지·발전, 인간 또는 농촌 마을의 입장에서 자원을 파악하고 평가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평가지표를 크게 자연·문화·사회자원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정남수, 2005). 윤성수 등(2006)은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개발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 항목을 활용하여 행정리별로 어메니티 자원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농촌마을 개발계획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 등 OECD 선진국들의 경우 1990년대에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개념을 구체화시키고 2000년대 들어서는 농촌어메니티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실천화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특히, 영국의 경우 도시 및 농촌계획법과 환경보호법 등에 광범위하게 어메니티의 개념을 적용하여 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OECD 주요 국가에서는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한 마을계획 및 설계 기술과 관련한 광범위한 조사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을계획 및 설계 매뉴얼이 확립되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연구기관 등에서 활용·실천하고 있다(김정섭, 2001).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분류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사이카 겐이치(1998)는 농촌어메니티를 새로운 농업 혁명의 차원으로 고찰하여 어메니티 자원을 생명·안전어메니티, 자연어메니티, 역사·문화어메니티, 미적어메니티, 편리어메니티, 개성·종합어메니티 등 6가지로 분류하였고, OECD(1999)에서는 생성의 기원, 존재 형태, 재산권의 주체에 따라 어메니티를 분류하였다. 농촌자원개발연구소(2004)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자연자원, 문화자원,

사회자원으로 크게 분류하였다. 세부적으로 자연자원은 환경자원과 생태자원으로 분류하였고 문화자원은 역사와 경관자원으로, 사회자원은 시설, 경제활동, 공동체 활동자원으로 분류하였다. 윤희정 등(2006)은 2004년 농림부에서 도출한 자연자원, 사회자원, 문화자원 37종에서 각각 18개, 32개, 50개(총 100개)의 하위 세부항목을 각각 21개, 29개, 50개(총 100개)로 재분류하였다. 김선희(2006)는 국토어메니티를 국토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공간—도시, 농촌, 산촌, 어촌, 기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사회자원으로 분류하였다. 이동근 등(2007)은 153개 읍면을 대상으로 구축된 2005년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10개 분류 66개 자원 중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추출하여 수자원, 지형자원, 식물자원, 경관자원 등 총 4개의 대분류와 하천, 저수지, 호수, 약수터, 소, 바위, 마을숲, 보호수, 농업경관, 산림경관 등 12개의 하위항목으로 재분류하였다.

임창수 등(2006)은 어메니티 지향적 농촌공간정비에 필요한 농촌어메니티 강화 및 저해요소 평가 체계를 구축하였다. 향후 농촌공간을 개발하고 정비할 때 어메니티를 강화시키는 요소에 대해서는 보전 및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어메니티를 저해시키는 요소에 대해서는 개선 및 정비대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배승중 등(2007)은 객관적으로 파악 가능한 요소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요소를 자연적 자원, 문화적 자원, 사회적 자원 등으로 구분하여 모두 61개의 평가요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농촌어메니티 자원 중 중요한 요소인 농촌 경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농촌경관가치도(RSVI)의 개발하였다.

기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수행된 어메니티에 대한 연구는 어메니티 개념 정의와 자원조사 및 분류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또한 기존의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분류방식은 자원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에만 기초하여 장소 고착적 성격을 갖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효

과적으로 분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원분류 기조 및 체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한경수(1999)는 기존의 자원구분 및 요소과약 사례와 군단위 지역개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및 세부항목 설정사례를 기초자료로 하여 인간의 “삶의 터”를 구성하고 있는 “살터”, “일터”, “쉽터”에 대응하는 인문사회자원, 토지자원, 자연환경자원으로 농촌자원의 구성자원을 구분하였다. 그런 다음 특성지역별(농촌, 산촌, 어촌)·구성자원별(이용목적별) 9개의 자원평가 목표체계를 설정하였다. 각각의 자원평가 목표체계는 대·중·소의 3단계 분류방식으로 총 116개의 자원요소로 구성된 자원평가 목표체계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농촌공간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살터”, “일터”, “쉽터”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한경수(1999)의 연구는 토지자원, 자연환경자원, 인문사회자원 등 농촌자원을 총망라하여 농촌자원평가에 대한 전체골격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구분한 반면 이 연구에서는 어메니티 자원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향후 효율적인 어메니티 자원별 관리 및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기 위해서는 농촌공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공간적 입지 특성에 따라 분류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 재정립

가.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 시안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자료 검토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 시안을 작성하였다.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공간 구조상의 입지측면에서 녹색·생산·생활환경공간 등 3개의 특성공간에 맞게 대분류하고 각각의 공간에 대해 5개의 자원으로 중분류하여 정형화하였다. 녹색환경공간으로 분류된 자원은 농촌지역의 자연환경과 관련된 어메니티 자원으로 동물자원, 식물자원, 경

Table 1 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

구분	사이카 겐이치 (1998)	OECD (1999)	한경수 (1999)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김선희 (2006)	배승중 등 (2007)	이 연구
자원 분류	자연어메니티, 생명·안전어메니티, 미적어메니티	생성의 기원, 존재 형태	토지자원, 자연환경자원	환경자원, 생태자원 경관자원	자연자원 문화자원	자연적 자원 문화적 자원	생태환경 자원 생활환경 자원
	역사·문화어메니티, 편리어메니티, 개성·종합어메니티	재산권의 주체	인문사회 자원	역사자원 공동체 활동자원	사회자원	사회자원	생산환경 자원
	-			토지자원			

*현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농촌환경자원과

관(지형)자원, 수자원, 기상자원 등으로 분류하고, 생산환경공간은 농촌주민의 소득과 관련된 어메니티 자원으로 생산시설자원, 산업경제자원, 공동활동자원, 친환경 농업 자원, 농외소득자원 등으로 분류하였다. 생활환경공간으로 분류된 자원은 농촌주민의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어메니티 자원으로, 인적자원, 공공시설자원, 환경 시설자원, 공동체자원, 역사문화자원 등으로 분류하였다.

나.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 재정립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시안)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해 관련 전문가 그룹의 평가를 2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연구 과정에서 간과할 수 있는 자원의 중복 및 누락 등 중요한 사항을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함으로써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전문가 그룹은 전문분야에 따라 농촌계획, 조경계획, 환경생태, 경관계획, 관광계획관리 등으로 구성하였고 전문가의

직위 및 직급은 박사학위 이상의 관련 분야 연구원, 대학 교수, 농촌관련 공무원 및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으로 한정하였다.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시안)의 적합성 검증 1차 평가는 2010년 6월 19일에서 7월 4일까지 이메일로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를 재정립하였다. 2차 전문가 그룹 평가는 2010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1차 평가와 동일한 방법과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수정된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그룹의 평가결과 요약과 반영여부는 다음 Table 2와 같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인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를 재정립하였다. 수정·보완한 내용과 기타의견을 살펴보면,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시안)의 각 대분류에서 5개의 중분류

Table 2 전문가 평가결과(요약)

대분류	중분류	의견	반영여부
녹색 환경 공간	동물자원	김OO: 가축(사슴 등) 및 특산동물(삼살개 등)도 해당 가능 한OO: 집단서식지 유무 추가 황OO: 필요한 항목이나 자료의 취득이 매우 어려움	부분 반영 미반영 참고
	식물자원	조OO: '일정 면적을 갖는 녹지공간' 은 경관자원과 구분 모호 식물자원은 공간의 차원이 아닌 개개 식물자원의 차원에서 자원분류가 필요 마을 가로수 또는 꽃길 조성이 늘고 있는데 경관자원에 추가 고려 김OO: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보호 및 희귀식물 등의 특정 식물을 포함 황OO: 천연기념물과 기타 보전 가치가 큰 특이식물 등 고려	참고 참고 반영 반영
	경관자원	조OO: 인공경관 부분이 미약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예: 마을정자, 안내시설물, 도로 및 마을안길, 가로시설물, 공공디자인). 특히, 최근 경관법이나 경관조례 등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만큼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음. 한OO: "농촌경관" 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경관법에서의 경관, 농림어업인살의질향상법의 농어촌경관 구분),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농가 or 면적, 경관협약체결 유무	참고 참고
	수자원	김OO: 저수지와 구분되는 연못(친수공간), 방죽, 소류지, 논, 둠벙, 배수장의 배수지(池)도 포함	부분 반영
생산 환경 공간	생활활동 자원	조OO: 자원의 위계설정이 필요, 어업시설 추가 김OO: 축산(동물)자원 포함 한OO: 농림수산축산업 시설, 친환경 인증품목 및 면적 등 추가, 우렁이논·오리농법·태평농법 작제 유OO: 생활활동자원과 공동생활활동자원의 구분이 애매모호함 황OO: 친환경 인증품목 및 면적 등 => 친환경농산물	반영 반영 부분 반영 반영 미반영
	산업경제 자원	조OO: 산업경제자원이라면 농외소득자원도 포함 황OO: 농가소득 작제	참고 반영
	공동생산 활동자원	김OO: 영농법인, 연구회를 포함 유OO: 각종 영농법인을 포함	반영 반영
	농외소득 자원	조OO: 도농교류 이외의 농외소득 재검토(예: 농산물 및 농식품 가공, 상업 및 서비스업 등) 김OO: 낚시터 포함.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라 명칭을 변경	참고 부분 반영
생활 환경 공간	인적자원	조OO: 단순한 인구구성 이외 지역리더 및 핵심인물, 인간문화재 등의 전통인적자원 등이 포함되어야 함 한OO: 고령화시대에 대비 65-75세 인구의 경제활동 인구 편입여부 적극 검토 필요, 최근 3년간 귀촌인구 추가 김OO: 농업부문(농업관련 작목반 또는 법인리더 등), 농외부문(공동체자원을 운영하는 마을리더 등), 기능보유자(짚공예, 천연염색 등 관련 기술을 습득한 자 등) 황OO: 인구, 가구수, 경제활동인구 등 삭제, 향토인물(기술, 전통 등 각종 분야) 추가	반영 반영 반영
	공공시설 자원	조OO: 기반시설과 경관자원은 어메니티자원 측면에서 대립되는 요소가 있어 향후 재검토 필요 김OO: 폐교, 정류소, 도농교류센터, 교회 및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포함 한OO: 기반시설자원(접근도로(마을내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학교 등), 환경시설자원(오폐수처리시설, 소각장, 공동퇴비장 등, 쓰레기 분류시설 등), 편의시설자원(마을회관, 노인정, 마을쉼터, 마을홈페이지 등) 조OO: 보건소와 의료복지시설은 중복되는 경향	참고 부분 반영 반영
	환경시설 자원	한OO: 환경시설자원→공공복지자원으로 변경, 의료시설자원(보건진료소(진료소), 의원(한방), 치과, 약국 등), 복지 시설자원(보육시설, 복지시설, 건강관리실 등), 문화/체육시설자원(어린이놀이터, 공연장, 체육시설 등), 휴게시설자원(판매장, 음식점, 민박 등) 황OO: 어떻게 긍정적 어메니티 개념으로 접근시킬 수 있을 것인가 고민되는 것으로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채택 여부를 판단	반영 참고
	공동체 자원	한OO: 지역참여활동에 각종 협약체결 건수 등 포함 유OO: 중분류명을 지역공동체자원으로 변경	반영 반영

항목을 중복되는 자원을 선별하여 4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대분류의 “공간”이라는 표현이 인적자원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자원”으로 수정하였고, “녹색환경공간” 역시 식물자원을 제외하고는 중분류 자원과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생태환경자원”으로 변경하였다. 또 최근 생태환경 복원과 수질개선 효과, 갈수기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등 다양한 쓰임새로 주목받고 있는 친환경 생태연못인 ‘뚝방’을 수자원으로 추가하였고, 기존에 환경시설자원으로 분류되었던 축산업시설을 생산기반 자원으로 편입시켰다. 한편, 농촌어메니티 자원으로서의 경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적자원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구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고령층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인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역사·문화자원에 인적자원과 귀농·귀촌 인구, 농촌경제활동인구(75세 이하)를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재정립된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는 Table 3과 같다.

IV. 자원분류체계의 적용 및 고찰

1. 자원분류체계의 현장 적용

가. 사례대상지역 개요

이 연구에서 재정립한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례적용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지역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 청계리(2개 마을),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3개 마을) 등 2개 법정리를 선정하였다. 2개 법정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에서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 연구의 사례지역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례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청계리는 칠서면소재지로 청계, 창동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는 179세대 399명(남: 197명, 여: 202명)으로 칠서면 전체인구 6,364명의 약 6.3%에 불과하다(함안군 통계연보, 2009). 중교리는 정곡면소재지로 장내, 문곡, 두곡마을에 223세대 470명(남: 235명, 여: 23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정곡면 전체인구(1,082명)의 약 43.4%에 달한다(의령군 통계연보,

Table 3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자 원
생태환경 자원	동물자원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중 동물(포유류, 조류, 어류, 곤충, 양서파충류, 무척추동물)의 종류와 특징, 특산동물(삼살개, 진돗개, 풍산개) 등
	식물자원	일정면적을 갖는 녹지 공간(마을숲, 비보숲, 군락), 노거수 등의 독립수,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천연기념물 중 보호 및 희귀식물 등의 특징 식물 등
	경관자원	농업경관(다랑논, 마을평야, 밭, 과수원), 하천경관(갈대, 하천의 흐름, 하천변수림, 식생), 산림경관(산세, 배후구릉지), 주거경관(건축미, 주거지 스카이라인), 해안경관, 특이경관 및 지형(생물서식지, 바위, 절벽, 봉, 소, 담, 폭포), 가로경관(가로수, 꽃길, 가로시설물) 등
	수자원	하천, 저수지, 연못, 뚝방, 호수, 폭포, 계곡, 온천, 약수터, 공동우물, 댐, 배수지, 소류지 등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지역 등
생산환경 자원	생산기반자원	농·림·수산·축산업 시설, 친환경농업 인프라, 친환경 인증품목 및 면적 등
	농업소득자원	지역특산물, 특용작물생산, 축산물 등
	농외소득자원	관광농원, 휴양단지, 펜션, 민박, 직거래장터, 농촌체험프로그램, 자매결연, 농산물 및 농식품 가공, 상업 및 서비스, 낚시터 등
	공동생산 활동자원	농업공동체활동(품앗이, 작목반, 판매·유통조직, 지역협의체구성, 영농법인, 연구회) 등
생활환경 자원	역사·문화자원	인적자원(지역리더, 사무장, 기능기술보유자(인간문화재, 특정·특별 기능 및 기술), 존경인사, 인간문화재, 귀농·귀촌 인구, 농촌경제활동인구(75세 이하)), 지역문화자원(마을축제, 이벤트 및 공동행사, 공연, 전시회, 예술활동), 역사자원(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신앙공간, 전통주택, 풍수지리나 전설) 등
	공공시설자원	생활기반시설(접근도로(마을내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학교(폐교 포함), 편의시설(마을회관, 도농교류센터, 노인정, 마을컴퓨터, 마을홈페이지)), 환경관리시설(오폐수처리시설, 소각장, 공동퇴비장, 쓰레기 분류시설, 농약 수거함) 등
	공공복지자원	의료시설(보건지소(진료소), 의원(한방), 치과, 약국), 복지시설(보육시설, 복지시설, 건강관리실), 문화·체육시설(어린이놀이터, 전시관, 도서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
	지역공동체자원	생활공동체활동(관혼상제부조, 경로잔치, 친목계, 씨족행사, 세시풍속), 지역참여활동(마을청소, 마을정비, 마을홍보안내, 행정기관의 지원, 각종 협약체결 건수, 마을규약 및 조례, 마을공동기금 및 토지) 등

2009). 두 지역 모두 가구당 인구수가 약 2명으로 경남 지역 가구당 인구수 평균 2.7명에 비해 적은 편이다.

나. 자원분류체계 현장 적용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는 2010년 8월 23일부터 약 1주일간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발굴사업(농촌진흥청)’ 조사방법에 준하여 시행하였다. 조사팀은 2인 1조로 2개 팀으로 구성하고 각 팀별 역할분담은 팀장(대학원생)이 운전과 사진 촬영, 주민 설문을 담당하고 팀원(학부생)은 현장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조사지역에 도착하면 차량지역과 도보지역으로 구분하고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마을이장 및 마을주민과의 면담, 설문조사 후 자원조사를 시행하였다. 한편, 생태환경자원 중 동물자원과 식물자원은 현장조사와 더불어 현장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기존 생태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조사결과 2개 지역은 다양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생산환경공간의 자원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조사지역 모두 현장조사에서는 동물자원이 조사되지 않았는데 자원의 특성상 쉽게 접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생태조사자료를 이용해 보완하였다. 중교리는 역사문화자원에서 우세한 결과를 보였는데 호암이병철선생의 생가가 있어 비교적 많은 자원이 조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두 지역 모두 면소재지로서 공공시설자원이 다른 자원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재정립한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에 있어 조사자에 따라 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다르므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자원선정 및 용어 선택이 필요하다. 둘째, 조사시점(계절)에 따라 자원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기별(계절별)로 자원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즉, 계절별로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4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 결과

대분류	중분류	합안군 칠서면 청계리	의령군 정곡면 중교리
생태환경 자원	동물자원	두더지, 멧토끼, 족제비, 오소리, 멧돼지, 노루, 병어리뺨꾸리, 검은등뺨꾸리, 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맹꽁이, 남생이, 능구렁이, 까치살모사 ¹⁾	너구리, 대륙족제비, 오소리, 삿,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뺨꾸리, 소쩍새, 물총새, 파랑새, 청딱다구리, 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도롱뇽, 두꺼비, 누룩뱀, 무자치, 유희목이, 능구렁이,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²⁾
	식물자원	산지침엽수림 소나무군락(03_Pd) ³⁾ 2곳, 산지침엽수림 소나무-상수리나무군락(03_PdQa) ³⁾ , 회화나무 4곳	산지침엽수림 소나무군락(03_Pd) ³⁾ , 소나무, 회화나무 4곳, 등나무, 대나무숲, 느티나무
	경관자원	농업생산경관 5곳, 농촌주거지경관 5곳, 하천경관 2곳	농업생산경관 5곳, 농촌주거지경관 7곳, 도로경관, 나부티고개, 두곡재, 당산 등
	수자원	하천, 광려천, 천개소류지, 점딕골소류지, 창동소류지	하천, 문곡소류지, 두곡저수지
생산환경 자원	생산기반자원	천계배수장, 천계제, 농협창고 2곳, 창동배수장	정미소
	농업소득자원	수박, 오이, 고추, 연근, 복숭아, 포도, 청포도	새송이버섯, 가지, 단감, 양배추, 수박
	농외소득자원	-	1사 1촌 자매결연(부산동구)
	공동생산 활동자원	칠서연근작목반	의령참쌀작목반,
생활환경 자원	역사문화자원	한옥 2곳, 흙담, 창동마을안내석	중교마을 유래, 중교리석조여래좌상, 호암이병철생가, 돌담 3곳, 한옥 2곳, 장내마을안내석, 중화당, 조산길, 두계재, 삼구정
	공공시설자원	삼칠농협칠서지점, 칠서파출소, 칠서초등학교, 칠서면 주민센터, 쉼터 3곳, 청계동회관, 구청계마을회관, 창동마을회관, 농약병 수거함, 페비닐 집하장, 쓰레기 분리수거함	쉼터 6곳, 의령농협정곡지소, 정곡면 주민센터, 정곡우체국, 중교교, 정곡파출소, 정곡초등학교, 장내마을회관, 정곡중학교, 문곡마을회관, 두곡마을회관, 농약병 수거함, 페비닐 집하장, 쓰레기 분리수거함
	공공복지자원	청계보건진료소	정곡면 보건지소, 체육공원
	지역공동체자원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1) 환경부, 2003, 합안·창원 지역의 자연생태조사보고서
 2) 환경부, 2002, 합천·의령 지역의 자연생태조사보고서
 3)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 생태자연도, 2010

2. 결과 및 고찰

기존의 연구와 문헌자료에서의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분류방식은 자원 자체의 본질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장소 고착적 성격을 갖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자원분류의 기초 및 체계성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농촌공간의 구조적 특성(살터, 일터, 쉼터)에 따라 장소 입지적 측면에서 재분류하여 자원조사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재정립한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한 결과 자원의 장소 입지적 측면에서 자원을 조사를 함으로서 자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어 조사가 용이하였다. 따라서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농촌공간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이 연구의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의 현장 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농촌 자원의 분석 및 활용 등 농촌마을 정비시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라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분류함으로써 농촌지역개발 계획 및 사업에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촌마을 재정비계획 수립에 있어 이 연구에서 제시한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를 이용한다면 농촌마을의 공간계획 및 신규시설 입지, 기존시설 재배치 등 마을정비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분류), 대분류 항목 각각을 5개의 중분류로 정형화하는 위계구조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정형화 된 분류체계에 기저하여 국내의 농촌어메니티 분류체계 설정사례에서 관계있다고 도출된 어메니티 자원항목을 입지적 속성에 따라 재분류함으로써 자원분류체계 시안을 작성하였다.

자원분류체계 시안에 대해 2회에 걸쳐 전문가 그룹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평가를 통해 자원의 중복 및 누락, 명칭 또는 표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참여연구진의 검토를 거쳐 적절히 조정·보완함으로써 분류체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 “3 대분류(생태·생산·생활환경자원)— 12 중분류(각 대분류별 4 중분류로 정형화)— 자원 항목”의 위계를 갖는 농촌어메니티 자원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2개 사례마을에 대한 적용연구를 통해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사례연구 과정에서 조사자의 자원 인식에 대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자원 선정 및 관련 용어 선택의 명료성이 요구되고, 일부 어메니티 자원이 갖는 계절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2009-0069132).”

V. 요약 및 결론

최근 농촌지역개발정책은 단순한 물리적인 시설정비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성 증진을 위한 어메니티 지향형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촌공간정비도 어메니티 지향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어메니티 분류체계는 주로 자원 자체의 본질적 속성에 기초하여 설정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소 고착적 성격을 갖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류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 바탕으로 하여 공간적 입지특성에 따라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분류하는 새로운 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농촌지역개발 계획 및 사업에서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먼저 농촌지역의 활동 공간(장소) 또는 ‘삶의 터’를 ‘살터’, ‘일터’, ‘쉼터’로 구분하고 이에 대응되는 구성공간을 각각 생활·생산·녹색환경공간으로 구분하였으며(대

참고문헌

1. 김선희, 2006, 국토어메니티의 개념과 정책과제, 국토 298, 6-16.
2. 김정섭, 2001, 농촌개발과 어메니티-국제적 논의 동향과 함의, 농촌과 환경 73, 21-32.
3.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4, 농촌어메니티 자원 활용 사례, 농촌진흥청, 9-10.
4. 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5, 농촌어메니티 자원 조사 사업 보고서, 농촌진흥청.
5. 농촌진흥청, 2004, 주민참여계획모델에 의한 농촌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설계기술 현장적용 연구.
6. 농촌진흥청, 2005, 농촌의 다원적 기능 향상을 위한 어메니티 보전 및 자원관리시스템 개발.
7. 박시현, 김정연, 이상문, 1995,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어촌 마을정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6-180.
8. 배승중, 정하우, 2007, AHP 기법에 의한 농촌 어메니티 가치 평가 모델 개발, 한국농공학회논문집

- 49(5), 33-44.
9. 윤성수, 김지현, 리신호, 서교, 김한중, 2006, 어메니티를 기반으로 한 노산하석권역 농촌마을 개발계획, 농촌계획 12(4), 43-51.
 10. 윤희정, 조순재, 김진선, 강방훈, 2006, 농촌어메니티 자원분석을 위한 평가항목 개발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1(2), 93-105.
 11. 이동근, 윤은주, 김은영, 조순재, 2007, 농촌어메니티 자원에 기초한 농촌경관평가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13(1), 11-17.
 12. 임창수, 2008, 어메니티 지향형 농촌마을 공간정비시스템 개발,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 임창수, 최수명, 김영주, 2006, 농촌마을 수준에서의 어메니티 강화 및 저해요소 항목체계 구축, 농촌계획 12(4), 89-97.
 14. 임형백, 2001, 어메니티의 개념, 기원과 역사, 분류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8(2), 191-199.
 15. 정남수, 2005,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평가를 위한 조사표와 항목개발, 농촌계획 11(4), 9-15.
 16. 한경수, 1999, 농촌마을 수준의 지역자원 평가시스템 개발,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7. 환경부, 2003, 함안·창원 지역의 자연생태조사보고서.
 18. 환경부, 2002, 합천·의령 지역의 자연생태조사보고서.
 19. 환경부 공간정보서비스(<http://egis.me.go.kr>) 생태자연도, 2010.
 20. 酒井憲一, 1998, 100億人のアメニティ ちくま新書, 筑摩書房.
 21. Cullingworth, J. B., 1964, Town and Country Planning in England and Wales, London : George Allen & Unwin Ltd., 10-11.
 22. OECD, 1999, Cultivating Rural Amenities : An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Paris.
-
- 접 수 일: (2011년 11월 9일)
 수 정 일: (1차: 2011년 12월 2일, 2차: 2012년 2월 10일
 3차: 3월 1일, 4차: 3월13일)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13일)
 ■ 3인 익명 심사필